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어민 여러분 그리고 수산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두 긴장되신 것 같은 데 분위기를 좀 푸십시오. 제가 막 헬기로 해서 사천공항에서 옮겨왔는데 우리 바다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중에서도 남해바다, 남해바다 중에서도 통영앞바다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곳에서 정말 알맹이 있는 중요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부터 계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해양수산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와계시고 수협 대표님들 그 밖에 각 지역의 어업 수산업 지도자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어업 수산업에 관계된 전국의 중요한 분들은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매우 무게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자율관리어업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2000년도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고 있을 때 막 시작하던 사업이고 아주 역점을 두어서 정성을 기울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행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모이신 것도 그 이유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

습니다.

자율관리어업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2000년도에 해양수산부장관을 하고 있을 때 막 시작하던 사업이고 아주 역점을 두어서 정성을 기울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업이 훨씬 더 커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애정이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민들과 수산인들이 살 길이란 이 자율관리어업이 성공하면 어민들에게도 길이 열릴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관심이 큽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아주 현명한 이기주의를 성공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날 각처에서 또 각 분야에서 흔히 말하는 이기주의, 집단갈등 이런 것이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손해를 보고 있는 일이 너무 많은 데 자율관리어업에서 성공한 사례와 방법이 다른 분야에까지 확산되고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모두 다 망하는 그런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사는 아주 현명한 이기주의를 성공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의 이 행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성공사례들을 발표해 주시고 또 필요한 토론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율관리어업에 관해서 어업과 수산업의 미래에 관해서 우리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 토론마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이 매우 성공적인 토론이 되어서 정말 우리 어민들과 수산인

들에게도 혹시 살 수 있는 길이 제시되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성공이 여러 분야에서의 갈등을 극복하는 좋은 사례와 모범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 마무리 말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주희 부경대 부총장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진땀을 빼십니다. 이렇게 시간이 예정되어 있는 행사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어야 하니까 마음이 하도 급하셔서 말씀 끝에 우리가 격려도 하고 박수를 해야 되는데, 박수할 시간도 안주고 바쁘게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매우 알차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말 너무 보태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저 시계 보니까 5분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3분의 1 되는 셈인데 저시계가 정확합니까? 조금 빠릅니까? 조금 넘어가도 괜찮겠네요.

여러분 성공하는 정책도 있고 실패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토론을 통해서 이 정책이 성공하는 정책이라는 전망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으로서 저는 이 토론 자체가 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론을 열심히 했는데도 잘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오늘 토론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성공을 할 것 같다 지켜 보자라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될 것 같은 데 우리 동네도 먼저 해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으셨다면, 당장 돌아가서 나도 한번 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시다면 이것은 아주 큰 성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책에 관해서 한편으로는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0년에 계획을 하고 2001년에 시작한 사업인데 아직 여기까지 밖에 못왔는가, 생각하니 세상 일이 쉬운 일이 없구나, 또 금방 금방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큰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1년에 보고받을 때 60여개(자율어업관리 공동체를 지칭)였는데 170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미 어민들이 9% 가까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은 다른 정책과 비교해 보면 3, 4년 동안에 정말 놀랍게 발전한 것입니다. 이 정도 성공한 사업이면 아마 국민들도 그리고 공무원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아낌없이 투자하고 싶은 사업일 것입니다.

돈으로 무조건 성공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돈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낌없이 투자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신이 났을 것 같고 수산회도 이제 조금 재미가 붙고 자율조정위원회도 자신을 갖고 불붙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요. 불은 진작 붙었다는데요. 어쨌든 저는 성공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에서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채택하기 이전에 이미 14개 정도의 성공사례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니다. 어민들이 먼저 앞서서 성공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정부가 '되는 것이다' 해서 해 왔고 실제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성공 안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 다시 반문도 해 보고 싶습니다. 이 길 이외에 우리 어민들이 살 길이 있습니까? 환경문제, 자원고갈의 문제와 그밖에 어업간 상호분쟁의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해양수산부 장관 몇 달하는 동안에 결국 이길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공시키는

핵심적인 조건은 대화, 토론, 양보타협 이런 것입니다.

80년대 중후반에 나는 분명히 투쟁이 나라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넘어서면서부터 투쟁이 국가발전에 점점 부담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민들도 80년대 후반부터 90년 이어오면서 점차 투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투쟁이 민주주의의 대의를 앞세운 투쟁이라면 90년대 투쟁은 이해관계를 앞세운 이익 투쟁이었습니다.

이익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서로 조정되지 못하면 결국은 모두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국가의 크고 작은 이익은 모두 다 상대가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투쟁만으로는 결코 풀 수 없고 자율관리어업의 과제인 자율조정과 대화와 타협만이 살길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큰 사업을 위해서 자율어업분야에서 협의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환경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지속가능위원회가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율관리어업이 한발 더 앞서 갈 것이라는 그런 예감을 갖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투자는 조금 전에 장관께서 소개하셨습니다만 어업발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불법어로에 대해서는 저도 장관 때 굉장히 동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대로는 우리 어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어서 단호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도 제가 장관과 해경에 강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직업을 전환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마련해야겠지만 어쨌든 대안이라는 것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대안을 수용해 주시고 불법어업은 반드시 근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아주 확고합니다.

다. 함께 도와주시기 바라고 불법어로서설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법과 정책을 지키면서 모두가 함께 살길을 찾아가는 성공적인 자율관리어업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